

최 미 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양 지 영

# 지각대상으로서의 표현연구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 미 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 년 11 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판 화 학 과

양 지 영

# 인 준 서

양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원 과정동안 제작된 본인의 작품 중 2004년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전개 과정을 분석 한 것이다.

본인은 일상 공간인 집과 작업실에서 항상 접하게 되는 주변 사물들에서 어느 순간 ‘낯설음’을 경험하게 된다. 무심코 지나치는 사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사물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본인의 감정들을 표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동기가 되어 일상공간을 재인식하게 되고, 주변사물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낯설음의 경험은 주변 사물에 대한 지각으로 나타나며, 사물을 지각함으로써, 본인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는 습관적인 시선을 환기하여 대상자체로 바라보아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바라봄의 행위를 통하여 사물들의 존재와 사물과 본인과의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 내용을 본 논문에서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에서 설명하고, 사물들에 대한 본인의 감정과 경험을 ‘사물과 나’에서 언급 하였다.

본인 작품의 표현 방식은 선을 사용하여 하나의 선이 그어질 때 마다 점진적으로 형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드로잉으로 하였다. 비교적 드로잉과 비슷한 효과를 주기위한 판화 매체로서 석판화를 사용하였다. 선을 강조하기 위해 색의 사용을 절제하고, 집적된 선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톤의 변화에 주력하였다. 선의 집적과 중첩을 통해 지각대상으로

서의 사물의 존재감과 주위환경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형성하여 본인과 사물과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본인과 사물들과의 관계를 모색하고, 사물들을 형상화하는데 있어 조형적인 요소를 서술하고 제작과정을 밝힘으로써 주제를 표현함에 있어 논리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의 작품전개에 있어 하나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 목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내용적 측면	
1)작품 제작 동기.....	3
2)일상공간의 재인식.....	5
3)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	7
4)사물과 나.....	9
III. 조형적 측면	
(1)집적된 선.....	12
(2)절제된 색.....	14
(3)공간.....	15
IV. 작품설명.....	17
V. 결론.....	31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1】 가까이 있는 정물, 30×45(cm), Aquatint, Etching, 2003·····17
- 【작품2】 상회의 자리, 100×70(cm), Lithograph, 2003·····19
- 【작품3】 내 사물함,50×70(cm), Lithograph, 2004·····21
- 【작품4】 가까이 있는 정물, 100×70(cm), Lithograph, 2004·····23
- 【작품5】 선미언니의 자리, 100×70(cm), Lithograph, 2004·····25
- 【작품6】 가까이 있는 정물, 50×70(cm), Lithograph, 2004·····27
- 【작품7】 미라의 우산, 50×70(cm), Lithograph, 2004·····29

##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속에서 생각하고, 상상하며 자신이 느낀 감성을 표현한다. 본인은 예술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세계에서 느낀 감성을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관심은 본인을 둘러싼 공간, 즉 본인에게 익숙한 풍경들에서 출발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이나 일상 속의 사물들은 우리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가지며, 그 속에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양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중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변사물들에서 느끼는 본인의 감정이다. 어느 순간 일상 공간 속의 사물과 마주하게 되면서, 전과는 다른 감정이 생긴다.

본인은 처음에 삶의 주변에서 보여 지는 사물들의 모습 중에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포착하여 드로잉을 통해 표현하였다. 이런 일상의 사물이 여러 번 그려지고, 작품으로 표현되면서 단지 일상의 사물이 아닌 본인과의 관계 속에서 특수화되고 개인화된 특성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경험 자체를 작업의 동기로 삼고,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일상의 사물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서술하고자한다.

구체적으로, 본론에서는 작품 제작 동기를 밝히고, 일상 공간을 재인식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는 과정과 개별적인 사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을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에서 논하고자한다. 또 본인과 사물의 관계를 김춘수의 시‘꽃’과 비교하여 ‘사물과 나’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조형적 측면으로 본인 작품에 나타난 사물의 표현방식을 집적된 선, 절제된 색, 그리고 공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작품설명에서 작품 사진과 함께 제작 동기와 진행 과정, 표현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자한다.

## II. 내용적 측면

### 1) 작품 제작 동기

주변사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에 진학하여 작업실이란 공간이 생기면서이다. 처음에는 텅 빈 공간이었던 그 곳을 여러 명이 공간을 나누어 쓰게 되면서 본인은 각자 작업에 필요한 사물들을 갖다놓으며 자기만의 자리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에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았다.

작업실은 여러 사람이 쓰고 있어서 공적인 장소이나 그 곳에 있는 각각의 자리는 개인적인 것으로 벽으로 나뉘지 않는 한 계속 공존하게 된다. 본인에게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습관이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는 행동들을 지켜보던 중 누군가 부재한 자리의 사물들에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의 작업은 남의 자리를 엿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본인은 어떤 느낌을 주는 주변사물들의 모습을 스케치북에 그리기 시작했다. 또 그것을 드로잉 할 때 사물의 윤곽선을 중심으로 주변사물과의 관계 등을 재빨리 관찰하여 즉흥적으로 그리면서 순간의 감정을 나타내려하였다. 때론 손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였는데 그로인해 소재가 지닌 생기 가득한 활기를 드로잉에서 나타낼 수 있었다.

삶의 공간에서 매일 보여 지는 주변풍경들을 마치 일기를 쓰듯이 스케치북에 드로잉하면서 같은 풍경이라도 여러 번 그리게 되고, 그때그때의 감정이 그림에 드러나면서 사물이 마치 생명을 획득하여 개성화되고, 정신적인 호흡을 하는 독립적인 주체<sup>1)</sup>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스케치북을

---

1)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역, 열화당, 1979, p.126

사용할 경우 습관적으로 페이지를 넘기는 순서에 따라 그리게 마련이므로 시간 경과에 따른 순차적인 전개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을 작업에 대입하였다.

또 본인은 예술가의 드로잉 중에서 역동적이며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작업에서도 그러한 선을 쓰고자하였다. 드로잉에서 눈으로 선을 따라가며 그림을 읽다보면 예술가들의 작업하는 행위와 감정이 본인에게 전달되고 감동을 받는다. 화면에서 자유롭게 가로지르며 운동감이 느껴지고,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유로운 선은 예술가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것 같다. 따라서 본인은 선이 강조되는 드로잉으로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변사물들 중에서 본인에게 단지 ‘어떤 느낌’을 주는 공간, 즉 누군가의 자리를 그리기 시작했다. ‘어떤 느낌’이란 실내 사물이 어느 순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을 의미하며, 실내 사물들의 형과 색 등의 조형적인 요소들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전체적인 공간에서 점차 세부적으로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구석이나 사물 등을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면서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주변공간의 이미지를 그림의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단지 그 속에 있는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고정된 하나의 화면만을 제공해주는 것만이 아니라 사물의 진정한 모습에 관심을 두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낯설음’의 경험을 통해 일상공간이 작품으로 표현되면서 그전과는 또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고,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물들이 본인으로 인해 다시 바라

---

참된 예술작품은 비밀로 가득차고 수수께끼 같은 방식으로 ‘예술가에 의해’ 생겨난다.

보게 되었다. 작업실 구석 등에서 찾아낸 소외되었던 이미지를 밖으로 꺼내놓아 사물에 관심을 갖고 사물과 본인의 관계를 다시 확인 하게 되는 것이 작품제작의 동기가 되었다.

## 2) 일상 공간의 재인식

일상이란 개념은 어원학적으로 볼 때 ‘반복적인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테메론(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 유래한다. 또한 한자어 日常이란 늘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라는 뜻이다. 즉 이런 반복의 결과, 일상은 ‘관례화된 것’또는 ‘습관을 가리키기도 한다.<sup>2)</sup> 일상적 삶의 세계는 반복적이며, 그렇기에 더욱 무의미해지기 쉽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삶의 세계에서 철학적인 진리가 발견되듯이, 그 안에는 본인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 거리들이 움직이고 있으며, 지루함이 아닌 특별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숨겨져 있다. 즉 본인에게 일상은 매일매일 똑같은 날의 반복으로 인해 지루하거나 무의미한 의미가 아니라 주변에서 작품의 소재가 되는 낯설음의 경험들로 인하여 설레고 기대를 품게 하는 삶인 것이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상을 인식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학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느끼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숙련행위를 해 낸다. 실존 공간에 근거한 공간이미지를 그려 낸다는 것은 공간속에서 행해지는 자신의 행위와 형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물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지는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sup>3)</sup>가 된다.

2)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171

3) 박우찬, 미술에 반영된 한국적 공간인식의 특징과 공간이미지의 형상화, 미술세계, 중앙일보사, 1993,8월호, p.84

그렇다면 실재사물에 근거한 이미지를 그려낸다는 것은 그 사물과 자신과의 관계를 되짚어보고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생활공간에서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 든 사물 및 인간과 관련해서 살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의미가 작용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물은 나에게 있어 단지 거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 즉 나에게 좋고 싫음의 정념이나 가치판단의 기억이나 상상을 동반하는 여러 가지의 상념이 더해진다. 즉 하나하나가 나에게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4)</sup> 늘 접하게 되는 사물들은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 수집된 것들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물 하나하나가 우리들과 의미관계에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서 일상 공간인 작업실이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낯설은’ 공간으로 인식된다. 즉 우리는 개인적인 경험의 범위 안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경험된 것이고 시각적으로도 익숙한 주변의 사물들은 어느 순간 ‘낯설은’ 느낌을 준다. 본인은 당연시되어 무시코 지나치는 일상 공간속의 사물들을 ‘낯설음’의 경험을 통해 지각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찾아보며 일상공간을 재인식하게 된다.

일상 공간에서 만나는 낯설음의 경험은 본인으로 하여금 주위 대상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 본인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의 반복을 통하여 일상 공간을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4) 나카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최재석, 도서출판 국제, 1999, p.109

5) 존 버거, 이미지 Ways of Seeing, 동문선, 1996, p.26

### 3)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느낀다는 것이다. 지각이란 그 본래의 기능이 주관적이면서 비-공간적인, 우리 자신의 상태를 통해 공간 속에서 우리를 대상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sup>6)</sup> 보통은 하나씩 밖에 만날 수 없는 사물들이 우리들에 의해 수집되어 좁은 범위 안에 모아져 정리된다. 우리들에 의해 수집된 사물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늘 하염없이 새로운 사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공간은 사물들로 점점 가득 차게 되는데 그 행위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지각 되지 않는 것이다.

본인은 낮설음의 경험을 통해 어느 순간 일상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사물들을 지각하게 되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 수집되어진 사물들의 존재를 지각함으로써 본인은 그 엄청난 수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집이나 작업실의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들을 지각함으로써 본인이 사물들을 갖다놓은 것이 아니라 사물이 스스로 공간을 채우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삶속의 여러 공간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본인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항상 보게 되는 것들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낮설음' 느낌을 준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대상들은 즉시 정서적인 인상을 우리에게 일으킨다<sup>7)</sup>고 하였다. 처음 접하는 공간에서 '낮설음'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일 보는 사물, 혹은 공간에서 낮설음을 느끼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의 주된 생활공간인 집, 작업실 등에서, 작업의 모티브가 되는 소재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것은 사물을 습관적이지 않는 시선으로 바

6) M.Pradines, 지각작용, 1981, p.27

7) 칸딘스키, 앞의 책, p.58

라보게 함으로써 감정을 배제한 채 대상에 대한 지각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각된 사물로서 특히 본인은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사물의 조형적 특징들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비록 주변에 늘 그렇게 있어왔던 사물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 동안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그것들의 조형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독특한 형태, 색채 등이 본인의 시선을 한동안 멈춰 있게끔 한다.

또 실내의 사물들은 조명에 의해 생긴 어둠 즉 그림자로 인하여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조명에 의한 그림자는 사물에 붙기도 하고 바닥에 드리워지기도 한다. 드리워진 그림자는 사물에서 다른 사물위에 걸쳐서, 또는 사물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걸쳐서 드리워진다. 이렇듯 드리워진 그림자는 어둠을 뿌리는 기이한 힘을 사물들에 입힌다.<sup>8)</sup> 그것은 약간은 뿌옇고, 침착하고, 조용한 느낌을 주는데 사물이 무생물이 아니라 생장(生長)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게 사물을 응시할 때, 그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도구로서의 목적성을 떠나, 단지 조형적인 목적으로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상으로서 본인에게 다가온다. 그 순간 본인은 대상에서 뭘지 모를 생소함을 느끼게 되고, 그 조형적 특징에 몰두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이 더해지며 특별한 감정이 생긴다. 주변 사물들은 모두 쉽게 접할 수 있으며, 확실한 형태를 띠고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는 그것을 쥐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감각을 통해 견고한 질감을 느낄 수 있다.

---

8) 루돌프 아른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미진사, 2003,p.311

계속 바라보다보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도 사물의 형상을 눈으로 훑으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사물의 특징, 얼룩의 모양이나 그것에 대한 기억까지 끌어내어 보게 된다. 그때 사물들은 본인과 정면으로 바라보며 본인을 응시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 때 여러 상념들이 떠오르게 되며 본인과 사물이 전과는 다른 특별한 관계가 되었음을 지각하게 된다.

본인은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을 통해 그것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게 되고 바라보면서 각각의 사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다. 점차 본인의 시선이 전체적인 풍경에서 구석의 사물로 집중되면서 다시 사물을 지각하게 된다. 또 사물에 대한 여러 상념들이 더해지면서 사물이 본인에게 정서적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른바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물들을 작품을 통해 부각시키고 사물과 본인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그것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 4) 사물과 나

본인에게 지각된 사물들은 단지 일상의 사물이 아니라 본인과 특별한 관계로 존재한다. 김춘수(1922 ~ 2004)의 꽃(1952)<sup>9)</sup>이라는 시는 존재의

---

9) 꽃(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나의 이 빛깔과 향기(香氣)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그에게로 가서 나도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무엇이 되고 싶다./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의미를 조명하고 그 정체를 밝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에서 나타난 꽃으로 대변되는 사물의 본질을 추구하는 모습을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사물과의 관계로 대입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꽃’에서 ‘나’는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통하여 그(꽃)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소망을 구현하길 소망하는데, 주체와 대상이 주종(主從)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주체적인 ‘탄남’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순수한 ‘꽃’이라는 작품이 창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형상과 본질 곁에서 어떤 존재적 의미가 없지만, 서정적 자아가 존재적 깨달음 속에서 이름을 명명하게 됨으로써 살아 움직이고 향기로운 꽃이 된다.<sup>10)</sup>

본인이 사물을 인식하기 이전에는 그것은 무(無)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본인에 의해 사물을 인식하고 또 작품화하면서(이름을 불러줌으로써)무생물인 사물은 생명력을 가진 무엇이 되는 것이다.

작업실에 놓여있는 사물들, 예를 들어 빈 의자들은 때로는 사람의 형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재로 인해 그리움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의 부재를 사물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또 무심코 놓아둔 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는 어떤 이유가 반드시 있으며, 그러한 행위의 흔적들로 인하여 놓여진 사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대체로 작업실 주변을 남의 자리를 주로 소재로 삼다가 점차 자신이 존재감을 확인 시켜주는 곳에 대한 탐구로 인해 본인의 방으로 시선이 옮겨졌으며, 사물과 본인과의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

10) 한국대표 명시선, 김성호엮음, 도서출판 빛샘, 1993, p.380

우산이나 의자나 사물함 등은 주위에 있으면서 도구로서 목적성으로 인하여 어느 순간 긴밀하게 쓰여 지지만 사용이 끝나면 잊혀지고, 필요가 생길 때마다 다시 쓰여 지기를 반복하는 것들이다. 매일 만지고 보고 하는 사물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치워지고, 정리되고, 때로는 버려진다. 무심코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각할 때 사물들은 본인에게 서글픔마저 느끼게 한다.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어느 순간 바라보게 되고 지각하게 되면서 사물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주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있는 사물일지라도 작품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소유하게 된다. 익숙한 풍경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작품을 통하여 되새김 하게 되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다.

본인에게 추억이 깃든 사물을 작품화하는 것은 마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행위와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 ~의 자리, ~의 사물함 등의 제목은 사물들의 존재의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기억된 사물으로써 본인과 친밀한 관계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바라본 테이블위의 풍경들을 보면서 존재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고 사물에 대한 기억들, 여러 가지 상념들이 더해지면서 사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본인의 작품에 등장하는 사물함과 책상, 도면함, 우산, 의자, 빛과 그림자,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의 흐름까지도 본인의 잠재된 정서와 주관에 따라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이 있는 공간과 주변의 사물들의 이미지를 전면에서 부각하면서 ‘사물과 나’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 Ⅲ.조형적 측면

#### 1) 집적된 선

선은 예술가의 정신적 기반인 동시에 육체적 동작의 시각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선은 일반적인 개념으로써 형상을 가시적인 것으로 그려내고 그 형상에 대해서는 본질을 가지도록 한다. 선의 긴장감과 방향은 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동작의 흔적이며 빈 공간에서 대상의 형태를 창조하고 화면에 예술가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다.

본인은 처음에 제스처(Gesture)<sup>11)</sup>드로잉의 방법으로 사물을 표현하였다. 눈으로 대상의 배치, 형태, 부분들 사이의 관계, 공간내의 배열 등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을 재빨리 관찰하면서 손은 눈의 그러한 동작을 따른다.<sup>12)</sup> 이렇게 했을 때 손에 의해 감정이입이 고취되고 드로잉에는 생기와 즉시성이 표현되며, 비록 사물일지라도 살아있는 생명력과 운동감을 지니게 된다. 그런 다음 드로잉을 보면서 관심의 되는 사물의 묘사를 섬세한 선으로 묘사하여 자유롭게 휘갈긴 듯 한 선들과 차분한 선들이 공존하게 하였다.

본인은 판화의 여러 기법 중에서도 비교적 드로잉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석판화를 사용하였다. 모든 유성재료에 의한 드로잉은 석판화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리도 펜슬은 물론 볼펜이나 유성펜, 매직 등으로 판에 직접 드로잉 하였다. 이것은 본인이 소재를 발견하고 스케치북에 그리는 재료들과 똑같은 것이다. 본인작품에서 석판화 의한 선들은 가볍지만 산뜻한 느낌의 드로잉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11) 작품실현을 위한 행위, 동작, 손놀림 등 태도전체에 대한 총칭

(안연희 편, 현대 미술 사전, 미진사, 1999, p.384)

12) 클루디아 베티, 털 새일, 현대 드로잉 기법, 하영식, 미진사, 1998, p.33

본인의 작품에 주로 표현된 사물들의 형태는 수직과 수평선을 쓰기에 적절한 것으로 구도선과 함께 사용되어 강렬한 효과를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사물함은 수직으로 길게 서있는 형태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사용하는데 용이한 소재이다. 또 화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물 대부분이 사물함처럼 수직으로 세워져있거나, 탁자나 도면함처럼 수평선을 쓰기에 알맞은 것들이다. 수평선은 고요함이나 정지감 같은 것은 느끼게 하고 수직선은 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안정감을 준다.

처음에는 사물의 윤곽선을 드러내기 위해 사물의 외곽부터 밖으로 생겨난 그림자, 명암을 따라 점차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선을 집적시켜 사용하였다. 사물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대기에서 조용하고 침전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수직선들을 집적시켜서 표현하였다. 가는 선을 반복하면서 그 선들을 통해 집적된 효과를 강하게 하기위해 본인은 주로 볼펜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간과 사물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형상을 하얗게 비우고, 또 사물의 생기를 표현하기위해 윤곽선 내부로 침투하는 선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사물에 드리운 그림자를 표현하여 자연스럽게 사물이 드러나게 하였다.

본인은 선이 집적되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여 점진적으로 관심이 되는 대상 주변에 선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주변 풍경에서 중심이 되는 점진적으로 하나의 사물로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화면의 중심에는 선의 사용빈도가 높아지게 된다. 집적된 선으로 인한 표현은 그동안의 과정, 즉 바라보고, 지각하고, 손으로 형상을 점진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의 시각세계가 점차 주변공간에서 각각의 사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인의 이러한 작품표현 방식은 여러 번 긁은 것 같은 선들 속에서 그 선들이 한번 터치할 때 마다 점진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탄생하는 것처럼 보이

게 하는 감성적 방법이다. 본인의 작품은 예술품의 완성이 참을성 있는 탐색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명확한 선의 명쾌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분방하고 반복된 선을 통해 진전되어 나가는 과정이 가시화된 일련의 접근과 시험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준다.

## 2) 절제된 색

본인은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인 선을 강조하기 위해 색의 사용을 절제하였다. 선의 중첩과 집적을 통한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보다는 다양한 톤의 형성에 주력하였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배제하고 전체 분위기에 맞게 채도를 달리하여 색이 강조 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인 작품에서 색조는 모노톤으로 이루어져 있고 투명한 색조가 군데군데 사용되어 졌다. 은은하고 투명한 색조로 사물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였다.

톤의 변화를 주기 위해 미디움, 검정, 흰색을 기본으로 여기에 조금씩 다른 색을 섞어서 미묘한 차이를 두어 조금씩 톤이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하였다. 선을 표현하기 위해 회색에서부터 명도를 달리하여 색을 혼합하여 만들어 사용하였다.

또 해먹으로 인한 우연한 얼룩과 거칠은 붓질을 통한 바탕의 표현에서 석판화의 특징을 보여주며 사물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바탕으로 표현되었다. 가장자리는 흰 종이 그대로의 공간을 확보하고 난후 미디움으로 바탕을 찍고 그 다음에는 좀더 좁은 공간을 진한 색으로 찍어서 밀도감을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바탕색은 모노톤의 색조로 정하고 종이의 흰색을 바탕의 시작으로 생각하였다. 집적된 선을 사용하는 방식처럼 바탕

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단계를 보여주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점차 하나의 사물을 구체화하는 방식에 따라 관심의 대상인 사물에 색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우산 【작품7】 부분에만 수채화로 파란색을 칠하여 우산의 존재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색을 사용함에 있어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을 배제하고, 밝고 어두움의 톤을 사용함으로써 화면 안에서 서정적이며 생기가 있는 존재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맑고 투명하게 짙어낸 색들이 전체 분위기와 더불어 깊이 있는 공간감을 주고자하였다. 바탕을 표현함에 있어 해먹과 거칠은 붓 자국을 사용하여 소외된 주변사물들의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고자하였다.

### (3)공간

현대의 선화들은 물리적인 실재의 묘사가 아니라 가벼운 물체감, 인물형상의 강조, 장식적인 상상력 등의 특징을 띄고 있다. 그들은 그러한 표현 요소들이 돋아나는 그 표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sup>13)</sup> 선의 강조를 위하여 3차원의 효과를 최소로 한다는 것이다. 선이 강조되는 드로잉에서 본인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배경부분과 형상의 묘사를 통해 깊이를 주고자 하였다.

본인은 사물과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 즉 사물과 사물사이 혹은 사물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화면에 담으려고 하였다. 공기원근법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일수록 그 명도대비나 윤곽선의 선명도가 점차 감소

---

13) 앞의 책, p.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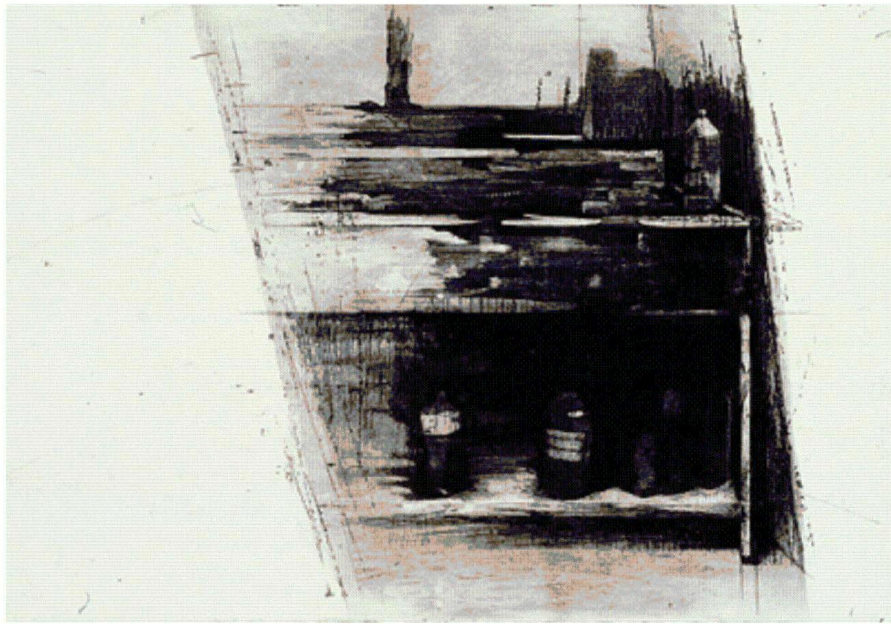
하면서 공간감을 표현한다면, 본인은 강조되어지는 대상과 그 주위를 무수한 선의 집적으로 어두운 톤을 형성시키고 화면의 외곽부분을 점차적으로 흐리게 선을 그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의 전이를 느끼게끔 표현하였다. 즉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들의 묘사를 대강하거나 생략하기도 하면서 공간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간은 명암을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깊이에서 다양한 변화와 느낌을 창조할 수 있는데, 본인의 【작품3】은 시계가 있는 주변의 명암을 상대적으로 어둡게 하여 그림자를 표현함에 있어 실제의 공간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묘사보다는 사물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써 명암을 일련의 선들을 밀집시켜 어둡게 만들어 깊이를 주고자 했다.

본인 작품에서 공간은 사물이 있는 전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품2】시점의 변화를 두어 같은 소재의 정면이라도 다르게 표현된다. 【작품3,5】또 사물과 공간을 혼용하여 나타내기도 하는데 양쪽 면을 차단하여 빈 공간으로 나누어 좀 더 극적인 공간으로 표현 【작품1】하기도하고, 한쪽 면을 차단하여 흰 여백으로 나누고 그 위로 외곽선이나 설정선들이 자유롭게 넘나들게 함으로써 더 강한 공간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3】

본인은 사물에 나타난 명암과 선을 표현함에 있어 밀도감 있는 톤을 사용하고, 전체적인 구도와, 작품에 따라 흰 종이 그대로의 빈 면으로 놔두어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런 공간표현의 방법은 본인 작품에 나타난 사물들의 존재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여 소외된 사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된다.

#### IV.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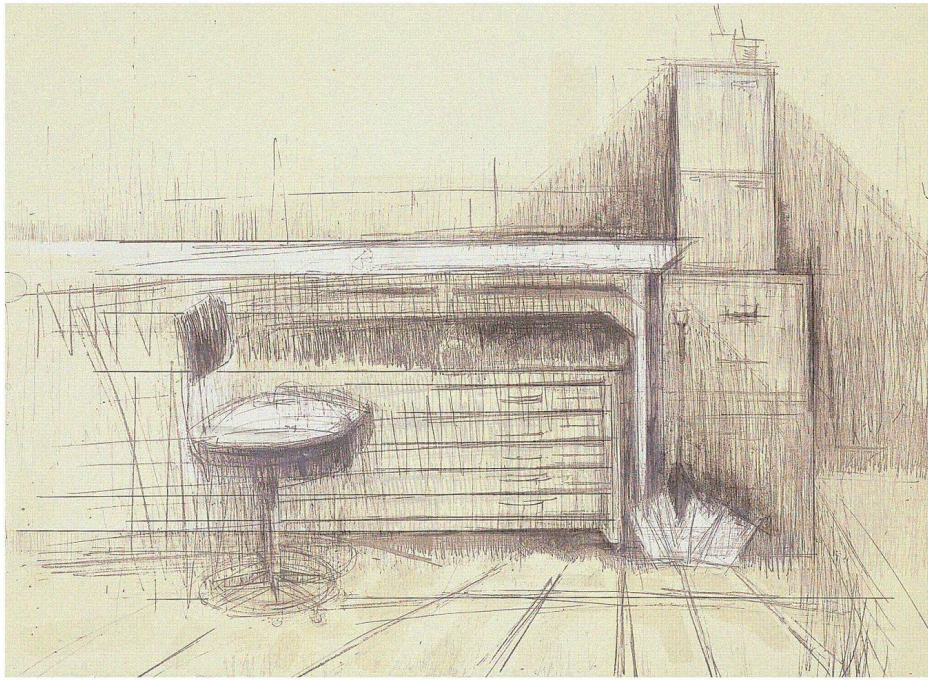
【작품1】 가까이 있는 정물, 30×45(cm), Aquatint, Etching, 2003

## 【작품1】 가까이 있는 정물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소한 경험에서 연유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계기도 작업실에서 본인의 자리가 개수대와 가깝게 있어 그 곳을 무심코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100호가 넘는 캔버스가 양쪽으로 세워져 그사이로 보이는 개수대의 모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다.

창문이 햇살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반면 어두운 개수대 선반에는 여러 모양과 성분을 알 수 없는 용액이 들어있는 병들이 놓여있다. 눈부신 창문과 대조적으로 어두운 개수대와 선반을 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용도를 헤아리기 어려운 각양각색의 병들이 놓여있으며 빛과 어둠의 선명한 대조를 보았다. 그 사물들의 있는 풍경에서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잊혀진,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상념들로 인해 작품화시키면서 환기시키고 감정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양쪽 면을 하얗게 남겨둠으로써 이미지가 있는 가운데로 집중되는 공간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동판을 이용한 아쿼틴트 기법이 주로 쓰였다. 여기에 사용된 선들은 의도적이기보다는 우연적인 느낌을 주고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생동감 있는 선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아쿼틴트 기법으로 인한 톤의 미묘한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작품2】 상희의 자리, 100×70(cm), Lithograph, 2003

## 【작품2】 상희의 자리

사물함이 있는 곳은 비가 오는 날이면 내 우산을 세워두는 곳이었다. 빈 의자가 놓여있고 우산이 있는 모습은 그것들이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 보이고 의자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과 닮았다는 생각을 한다. 사람이 부재한 빈자리는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을 유발시킨다.

본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공간을 따뜻한 느낌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미디움으로 바탕을 찍고 미디움에 블랙을 조금씩 섞어 여러 번 찍어내었다. 블랙에 은색안료를 섞어서 연필의 흑연 색깔로 마무리를 하여 투명한 느낌과 톤의 변화로 밀도감을 높였다.

의자와 테이블, 우산 부분에는 바탕을 찍지 않고 흰 종이 그대로의 색깔로 자칫하면 답답해질 수 있는 느낌을 피하고자했다. 대체로 아래로 흐르는 수직선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일련의 선들을 가까이 놓음으로써, 윤곽선과 명암과 더불어 즉흥적이면서 역동적인 선을 창출하고자하였다.



【작품3】 가까이 있는 정물, 100×70(cm), Lithograph, 2004

### 【작품3】 가까이 있는 정물

사물함에 애리 언니의 둥근 하늘빛 탁상용 시계가 걸려있다. 여기저기 잉크가 묻고 검은 얼룩도 있는 시계였다. 작업실에 있으면 시간은 멈춘듯 하지만 어김없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시계를 그리는 것은 작업실에서 보낸 시간을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시각화한 것이다. 시계는 둥근 형태와 시계의 시침방향을 통한 제스처로 인해 선이 밀집되었다가 주변부로 갈수록 날리는 듯이 표현하였다. 시계를 중심으로 선이 중첩되어 그어진 어두운 부분이 시선을 끌고 기계적인 선의 움직임에 더욱 활기를 준다. 사물함에 담긴 사물들을 표현함에 어 선들은 얽히고, 겹쳐지며, 즉흥적으로 힘차게 그어진다. 함부로 그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무의미한 선은 아니다

바탕의 투명한 연보라빛은 병들에 담겨있는 용액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림자로 이해될 수 있는 다층적인 공간을 표현한다. 무겁고 어둡게 묘사된 부분은 뒤로 물러나는 화면을 구성하고 무게와 긴장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선(형상묘사)으로 에워싸인 여백들은 형상을 모방 반복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물이 가지는 활기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 바탕은 거친 붓질을 통하여 만들어낸 판을 회색 톤으로 짙어내어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는 여백과 구분하는 바탕으로 표현하였다.



【작품4】 내 사물함, 50×70(cm), Lithograph, 2004

#### 【작품4】 내 사물함

작업을 하던 중에 우연히 찍게 된 사진 속 사물함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수직으로 길게 서 있는 형태와 여러 모양의 재료를 넣은 병 등이 빼곡하게 정리되어진 모습은 마치 거대한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사물함을 소재로 여러 작품을 제작하였는데, 그때마다 사물함에 대한 감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사물함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탁자위의 어수선했음과 함께 사물함 칸칸마다 여러 재료들이 빼곡하게, 또는 비어있거나 하는 등 내용물들이 유동적임을 알게 되었다. 또 작업과 연관되어 재료 걱정 없이 작업에 임하기도 하고 비어가는 것들을 보며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는 여러 상념이 더해졌다. 사물함을 통해 과거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작업의 모습까지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사물함 귀퉁이에 매달린 가방과 바닥의 신발은 선으로 형태만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빼곡하게 차있는 사물들을 생략시키고 그 대신에 가느다란 선들을 중첩시키고 집적시켜 유기적인 흐름으로 형성하여 사물함의 존재를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작품5】 선미언니의 사물함, 100×70(cm), Lithograph,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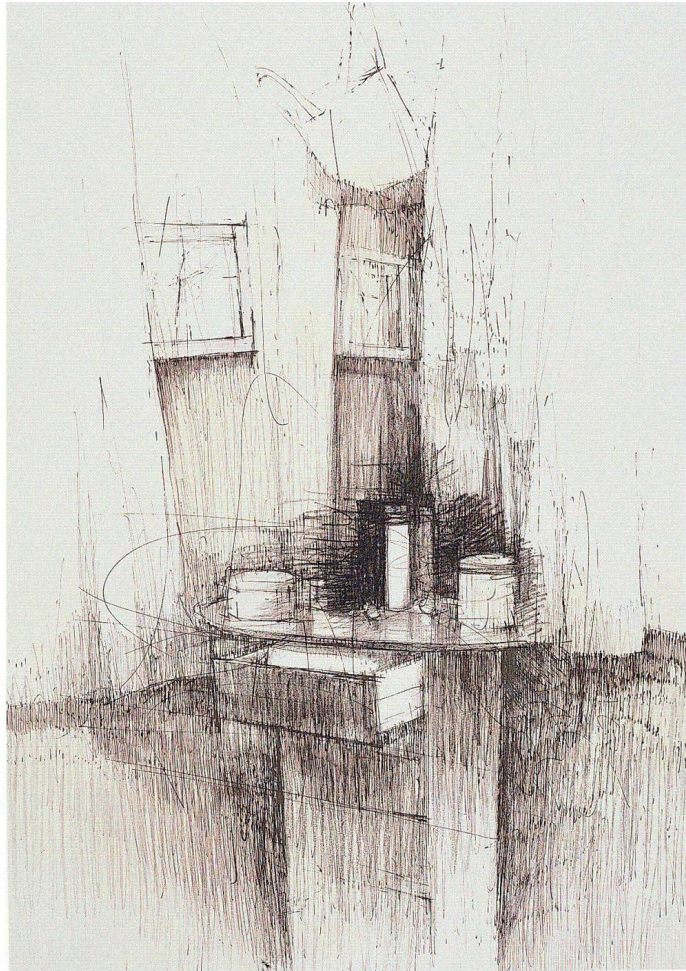
## 【작품5】 선미언니의 사물함

석판 프레스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쉬는 참에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선미언니의 사물함이다. 선미언니의 사물함을 보면서 한숨을 돌리기도 하고, 판의 물기가 마르기를 기다린다. 선미 언니의 사물함은 그 여느 사물함과 마찬가지로 여러 물건들로 꽉 차 있다. 선미 언니의 부재를 사물함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본인에게 추억이 깃든 사물을 작품화하는 것은 마치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사진을 찍는 행위와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

본인 작품의 주된 표현 요소인 선을 표현함에 있어서 단지 검정색을 사용하지 않고 농도를 달리하기도 하고 검정 잉크에 은색 안료를 섞어서 흑연색을 만들어 찍으면서 자칫 단순해질 수 있는 선들의 색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치 연필로 소묘를 해 놓은 것 같은 효과를 주고자 했다.

잉크가 있는 주변을 중심으로 잉크통을 정밀묘사 하듯이 자세히 드로잉하고 붉은 색을 넣어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도록 유도했다.



【작품6】 가까이 있는 정물, 50×70(cm), Lithograph, 2004

## 【작품6】 가까이 있는 정물

대체로 작업실 주변을 주로 그렸으나 자신이 존재감을 확인 시켜주는 곳에 대한 탐구로 인해 본인의 방으로 시선이 옮겨졌으며 본인과 사물과의 관계를 모색하였다.

이 작품은 화장품 같은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면서 묘사하기보다는 화장대라는 전체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나의 감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 작품에서 선들은 얽히고 겹쳐지며 즉흥적으로 힘차게 그어졌다. 함부로 그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무의미한 선은 아니다. 무겁고 어두운 선과 가벼운 선을 변화 있게 구사하고 어두운 선은 긴장감을 유발시키고자 했다.

중심부에 다소 신경질적인 선들이 응축되어 단순해질 수도 있는 그림에 활기를 주고 있고 수직과 수평선위주의 표현방법과 함께 다양한 선들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인의 감정을 작품상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사물과 본인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모색이 선행되고 난후에야 자연스럽게 사물에서 느낀 감정을 작품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식화된 습관적인 그림에서 탈피하여 감정을 표출하여 작품상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작품7】 미라의 우산, 50×70(cm), Lithograph, 2004

### 【작품7】 미라의 우산

실내에서 보는 우산은 실외 비 오는 날에 보는 우산과 다른 느낌을 준다. 우산은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의 도구로서의 목적은 사라지게 된다. 다시 밖으로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산은 더 이상 의식되지 않게 된다.

본인은 우산의 전체적인 모습, 손잡이 부분의 견고한 형태와 감싸고 있는 천의 색깔과 같은 조형적인 요소에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 접힌 우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펼친 형태를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온몸을 다해 빗물과 바람을 막아냈을 우산이 접혀져 구석에 세워져 있는 모습에서 측은한 마음 까지도 든다. 도구로써 목적을 상실한 실내의 우산은 외롭고 소외된 사물로서 인식되고 그 우산이 있는 주변까지도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다시 필요를 느낄 때 까지 그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연민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

견고함이 느껴지는 손잡이 부분에서 뾰족한 끝부분까지 수직으로 긴 선을 여러 번 겹치면서 표현하였다.

사물함 등이 있는 뒷 배경은 미디움을 많이 섞어 만든 옅은 회색 톤으로 찍어내고 묘사를 하지 않아 마치 얼룩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산의 외곽형태선과 그림자를 검은색으로 강한 대비를 주어 우산을 강조하는 효과를 주었다. 이로써 우산은 새로운 사물성을 가진 오브제로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수직 수평선을 주축으로 한 선을 써서 보다 역동적인 느낌으로 보여 지게 하였다. 구석에 놓여있는 우산을 작품화하여 우산에 대해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연민의 감정을 본인 스스로 해소시키고 정화하는 데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 V. 결론

본인에게 있어 창작행위는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는 것이며 일상과 동떨어지지 않은 경험세계를 표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본인은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주변사물에서 ‘낯설음’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일상공간속의 사물들에 대한 ‘낯설음’의 경험은 일상을 재인식하고 사물들을 지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물과 본인의 관계를 모색해봄으로써 사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규명할 수 있었다. 일상의 사물들을 작품화하여 소외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관심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의 중첩과 집적을 통해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의 존재감과 주위 환경을 유기적인 흐름으로 형성하여 본인과 사물 존재의 관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물을 표현함에 있어 조형적 구성 및 화면상의 배치에서 주변 공간의 여백을 강조하고, 수직과 수평선이 내포하고 있는 운동성으로 인해 사물의 존재를 강하게 표현 하고자 하였다. 실제 사물에 근거한 드로잉은 단순한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이 선에 표출되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집적된 선은 선들이 한번 그어질 때마다 하나의 그림이 탄생하는 감성적 방법이며, 절제된 색과 다양한 공간표현방식에 의해 소외된 사물의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일상공간에서 경험한 감정을 정제시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주된 표현이 선에 의한 중첩과 집적으로 형을 표현하는데 치중하여 관심 대상인 사물에서 느끼는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소재를 발견하고 작품화하는 일련에 과정에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공식화, 양식화되어 습관화된 그림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선의 중첩과 밑바탕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석판화의 테크닉을 연마하고 다른 판화매체와의 접목도 시도해야한다고 본다. 또 앞으로 사물과 본인과의 관계에 비중을 두어 공간속의 사물, 사물과 본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고자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지각대상으로서의 사물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작업을 통해 다양하게 표현하려는 의지를 다시금 세기는 계기가 되었다.

## 참 고 문 헌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나카노 하지무, 최재석 역, 공간과 인간, 도서출판 국제, 1999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역, 조형의 원리, 도서출판 예경, 1996

클라우디아 베티/틸 쎄일, 현대드로잉기법, 허영식, 미진사, 1987

루돌프 아르하임, 미술과 시지각, 김춘일, 미진사, 1995

수잔 K. 랭거, 예술이란 무엇인가, 박용숙, 문예출판사, 1989

W.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권영필, 열화당, 1979

존 버거, 이미지 Ways of Seeing, 동문선, 1996

# ABSTRACT

## Study on materials expression as a the subjects of cognition

-Centering around My Work -

Yang, Ji Young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is a research and analyses based on the works produced for the solo exhibition. These works I made during my graduate course from 2001 till 2004.

I experience 'unfamiliarity' from materials which I see everyday at home and a workroom, an everyday place, at a certain moment. Through drawing those materials which I did not much care about before, I tried to bring their existence into relief and express my own feelings for them. By this experience, I came to have a new understanding of the usual places an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around me and myself.

The experience of 'unfamiliarity' brought out the recognition on materials around me and two reactions toward them.

One is that I came to pay attention to the formative characteristic of materials through rousing habitual eyes upon them. Another is

that I started to 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istence of them and myself through steady observation. I described about them in the article, *materials as the subjects of cognition*, and about my own feelings and experience of them in *materials and me* .

My works are expressed by drawing, which shows the procedures that features are gradually made by each line drawn. To give the relatively similar effect of drawing, I used a lithograph. To emphasize on lines, I used the moderate number of colors and focused on the change of tones to raise the concentrated lines' density. I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s and myself by forming an organic flowing of the existence of materials as percepts and surroundings, through concentration and reiteration of lines.

In conclusion,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rationally express themes through describing formative factor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with materials and form them, and production processes. I intend to take this opportunity for a landmark of my artistic creation.